東亞日報 夕刊 一月二十二日(水)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政民何者가勝利하든 岡田內閣은後退?

選擧肅正을功績으로남기고

總選擧와政府의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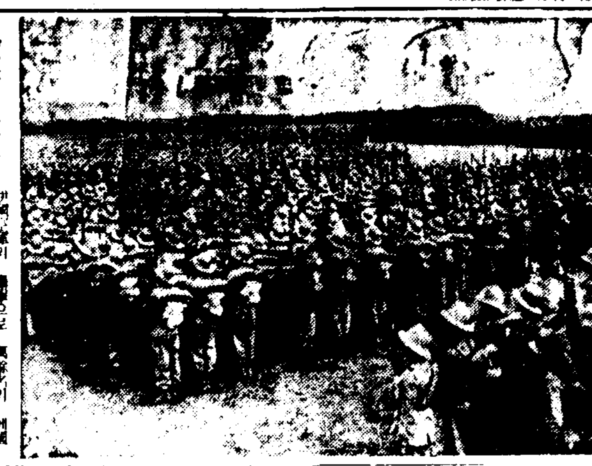
【東京電話通】 二月二十日의 總選擧結果에 對하여는 果然與黨의 勝利로 도라갈는지 政友會가 勝利할는지는 今日豫斷을 不許하는 바 政府로서는 岡田內閣存立의 重大使命인 選擧肅正을 이 總選擧에서 實行하야 …

岡田內閣의前途

依然樂觀을不許

政界各方面의觀測

【東京電話通】 總選擧後의 政局이 如何히 展開하느냐에 對하여는 政界, 財界 各方面에서 여러가지 意味로 興味를 가지고 觀測하고 잇는데 政界各方面의 觀測을 綜合하면 大體 如左 …



伊東阿出征軍 伊國陸軍의 精銳으로 萬餘名의 …

第一黨을目標로

政民活動開始

廿一日부터立候補屆出受理

各派의選擧陣營緊張

【東京電話同盟】 解散에 依한 總選擧期日은 來二月二十日 …

▲民政黨

▲政友會

▲國民同盟

▲昭和會

十三人委員會

和協對策斷念

簡單한報告書만採擇

伊軍攻略進行

大決戰切迫

伊太利新聞의報道

▲大衆黨

絕對多數를 民政黨樂觀

二百三十名 獲得을豫想

政友會第一黨?

그러나非政友의聯合支持로 岡田內閣은도리허明朗化?

警保局의總選擧展望

總選擧應援次 六相出馬

臨時議會는 四月廿日頃

角田領事館巡查

壯漢에게被襲絕命

出勤途中、犯人은不明

巡洋艦夕張汕頭에

"日米戰爭不可避"

恒常優勢한海軍을維持하라

米紙大大的으로揭載

日蘇開戰說盛行

東部蘇滿國境에서

滿人居住者、海參方面에追放

反日滿態度露骨化

外蒙兵數十名 監視所占領

宇垣總督의 時局談

地方長官會議 二十三日召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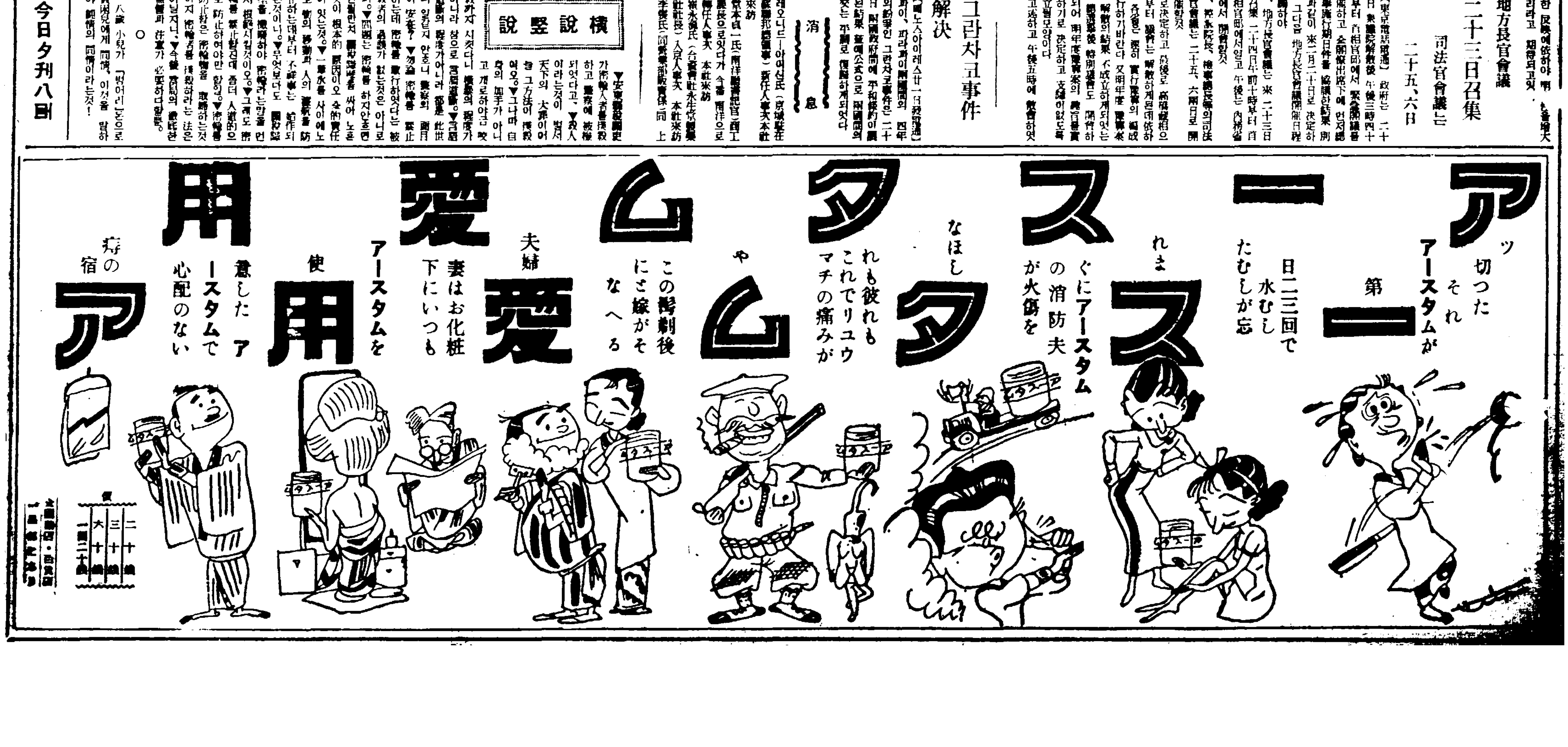
司法官會議는 二十五、六日

그란차코事件 解決

消息

橫說竪說

今日夕刊八面



大地에 숨이는 黃金波濤
道路網에 五千萬圓
總延長幹線里數五百萬平方米
四月부터 着手十年計劃

郊外로뻗칠大京城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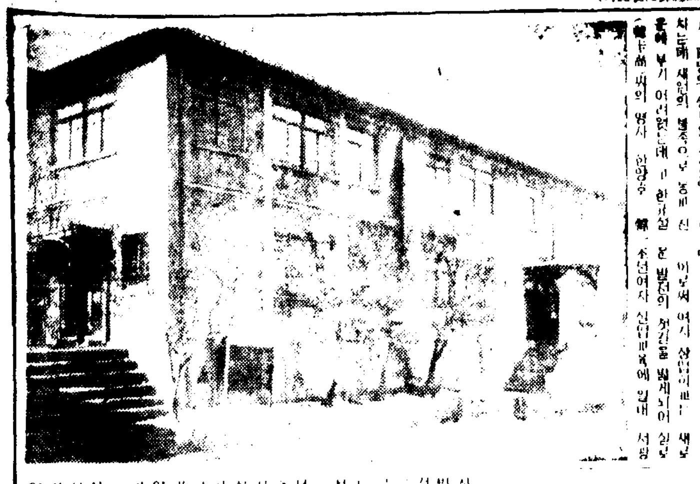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안(行政區域擴張案)이 실현될수에 있어 피외에 어떠한 도로망(道路網)이 나타날것이라는것은 본보 신년호에 그 간선(幹線)을 보도하엿거니와 부회정안이오 四월로써 실현되기로 되엿는지라 이에 당하고잇는 경성부로서 도시계획계에서는 그에 대한 세순비 [illegible] 공사에 방해하고 있다。

도시계획계에서 조사를 마친 결과 도로망은 간선(幹線)의 총연장 五백만평방메돌에 달한다는바 이에 대한 본격적 공사는 오는 四월 행정구역 확장안이 실현되는 동시에서 시가지계획령(市街地計劃令)이 발포될것이므로 四월이후부터 착수하게될것이라 한다。

동도로망의 공사착수계획은 서울구획정리(區劃整理)에 착수하여 그것이 완료된후에 도로공사는 시작될것이라는데 [illegible] 十년의 세월은 걸리게될것이라 한다。[illegible] 의 토지는 전부수매시 [illegible] 분할정리하야 시가로써 속히 발전할수잇도록 [illegible]

[illegible] 이 五백만평방메돌의 도로망을 신설하기에는 약 五천만원의 경비가 들것이로되 [illegible] 공사비용은 대부분 토지평수할 [illegible] 地坪數割에 의하야 충수하게 된다고한다。

十萬圓의 巨金드려 女子商業을 引繼
故韓圭卨氏令嗣韓亮鎬氏가
今春에 校舍도 新築



사진은 한량호씨

시내 여자상업학교(女子商業學校)에 새로운 서광이 비치엇다。故韓圭卨씨의 [illegible] 한량호(韓亮鎬)씨는 선친의 뜻을 받어서 [illegible] 동교경영을 인계하고 [illegible] 후 공고한 기초우에 완만히 발전 [illegible] 신교사를 건축하 [illegible] 대회장을 세우하고잇다 [illegible] 이로써 여자상업학교는 새로운 발전의 첫길을 밟게되어 [illegible] 조선여자 상업교육에 일대 서광 [illegible] 이어 이사 안흘수 없다 한다。

汶山支局全燒

【문산지국전화】 본보문산지국(汶山支局)은 二十일 오후 [illegible] 지국장이 외출중 지국에서 발화하야 전소되엇는바 지국의 중요한 서류까지 다 태워버렷으며 원인과 손해는 목하 조사중이라 한다。

哲學博士學位얻고 文章郁氏歸國

미국에 건너가 九년동안 형설의 공을 싸코 마츰내 철학박사의 학위를 얻은 문장욱(文章郁)씨가 귀국하엿다。

문박사는 당진(唐津)출생으로 一九二七년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illegible] 지에서 A. B.의 학위를 얻고 다시 [illegible] 대학에서 M. A.의 학위를 얻고 다시 [illegible] 의 학위를 얻엇다。문박사는 앞으로 교육계에서 일할 생각이라고한다。(사진은 문장욱씨)

舊曆歲暮와 同情
金之煥氏篤志

【?】 경성시외 [illegible] 김지환(金之煥)씨가 [illegible] 六十八원과 쌀 六十八두를 [illegible] 四호에게 현금 二원과 쌀두말씩을 二十一일에 분하주엇다고 한다。

罹災民爲하여 同情金遝至

【인천】 인천송현리 화재(仁川松峴里火災) 참상에 대하야 동정 [illegible] 가 답지한다 한다。

서나와 구실상에 동정하는 인사는 날로 늘어 동정금품은 더욱답지한다 한다。

▲仁川警察署取扱分▲二十圓 和振興會本町日本人基督教會仁川支部▲五圓內里一五五李氏▲白米五叭金泰勳、百東精米所

京城刑務所에서 破獄越墻타다 被逮
十年懲役中의 强盜罪囚로
또다시 公判에 廻附

강도죄로 복역중에 있는 죄수가 파옥도주를 계획하다가 미연에 발각되어 파옥도주미수죄로 또다시 공판에 회부되엇다。본적을 황해도 곡산군(谷山郡) [illegible] 작년 五월 二十五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十년의 언도를 받고 이래 경성형무소에서 복역중 [illegible] 을 급파하엿다。

紅軍이 狹攻

【함흥】 二十일 밤 함남경찰부 착전에 의하면 현재 남양성(南陽城)에 퇴가하엿는 홍군 양사령(楊司令)의 거느린 약 三백명은 의연 동지 부근에 잠재중인데 토벌대 일행 [illegible] 는 二도구 태평묘(太平廟) [illegible]

咸興三平公普 校長家燒失

【함흥】 지난 十九일 오후 [illegible] 三十분 경에는 함주군 삼평면(咸州郡三平面) 三평공보교(三平公普) 교장 사택에 불이 일어나 삽시간에 一호를 전소하는동시 가구집물까지도 재로 화하야 버렷다。원인은 온돌과열로 손해는 약 一천원가량이라 한다。

入學手續前哨戰 戶籍係에 異狀
벌서부터 戶籍謄本請求激增
府廳側도 對策講究

입학기를 앞두고 해마다 진절머리를 치게되는 경성부 호적계(戶籍係)에서는 벌서부터 이상현상(異狀)을 이르키게되엇다 한다。즉 전문、중등정도의 각종학교와 소학교에서는 수일전부터 원서를 접수하는 중인지라 매일 호적등본의 청구자는 격증하야 四백여명에 달한다는데 그중 四할가량이 입학지원서에 사용할 것이라 한다。

부내 각 초등학교에서도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게 되므로 년래의 현상으로 보아 반드시 호적대조(戶籍對照) 청구자가 쇄도할것이므로 이를 예상한 동계에서는 방금 그에 대한 방비책을 강구중이라 한다。동계에서 세운 대책에 의하면 二월 一일부터 임시사자생(筆生) 二十六七명을 채용하기로 내정되엇다는데 이번쯤의 증원으로서 능히 입학기의 난관을 돌파하게 될는지가 문제라 한다。

金海女親會員 火災民에 慰問

【김해】 기보=김해읍 회현리(會峴里)에 화재로 인하야 의식주를 일코 기한에서 떠는 이재민들을 구제코저 넉넉지못한 여자들의 주머니에서 푼푼이 긁어모아 적으나마 이것으로 먹지못하고 입지못하고 이혹한에 헤매이는 이재민들에게 밥한끼라도 따뜻하게 먹이어주시요하면서 김해여자친목회(金海女子親睦會)회장 김소포(金小浦)、총무 임순이(林順伊)、회계 박귀인(朴貴任)경생부 김례주(金禮珠)외 三분이 一금二十원을 가지고 본보김해지국(本報金海支局)을 찾아왓으므로 국원이 그이들과 가치 이재민들을 찾아 회현리 화재현장으로 가서 극빈자들에 매호 一원五十전 평균으로 분배하엿는데 이들의 참상은 참아 볼수가 없고 시급한 요구제자(要救濟者)는 五十여명이나 된다고한다。

昌城警察署에도 十二名罹病
道警察部六名增員

【신의주】 신의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발진티부스가 발생하야 경찰관 수명이 사망하엿음은 기보한바와같거니와 창성(昌城)경찰서에서도 관내 상점부사원 十二명이 발병하야 당장에 사무취급에 곤란이 생겨 소림(小林)경부보는 서장을 대리하야 평북경찰부에 응원을 요청하게되어 경찰부에서는 二十二일 경찰관 六명을 자동차로 급파하엿다。

병원계통은 유치중의 몽의자로부터 전염된것으로서 창성본서근무원 三十명중 약반수가 병에걸렷음은 구려년만경계와 국경경비제일선의 큰 지장이어서 도 위생과에서도 이미 간호부와 기수 一명을 급파하엿다。

에서 상점부사가 발생하야 경찰관수명이 사망하엿음은 [illegible] 七동이나 소진 [illegible] 된후에야 겨우 진화하엿는데 발화의 원인은 명확하지 못하다 [illegible] 七동에는 十八호가족이 거주하며 이재민은 六十二명이라 한다。

金泉에도 大火
十八戶全燒
發火場所는 貧民村落

【김천】 지난 二十一일 오후一시 四十분경에 경북 김천읍본정(金泉邑本町)七번지 박인근(朴仁根)의 집에서 불이 이러나서 때마침 맹렬히 부는 풍세를 따라 삽시간에 부근가옥 十八호를 전소하엿는데 경적소리를 따라 모여드는 소방수들은 진화에 노력하엿으나 원체 풍세가 강하고 부근一대는 빈민들만 거주하는부락으로 모다 초가로 연소되는 불길에 화세가 확대되어 [illegible]

惨! 救濟兩船도 坐礁
遭難船에는 食水絶乏
食糧滿載코 碎氷船 또出動
死線의 乘員百九十名

【진남포】 [illegible] 에서 유빙에 [illegible] 조난된 [illegible] 수 [illegible] 구조선 [illegible] 한 [illegible] 차 [illegible] 에 [illegible] 것이다。

그런데 [illegible] 조난선 [illegible] 이다。

▲千歲丸無電 [illegible] 二十一일 오전二시경 좌초、[illegible] 이초사업을 [illegible]

▲釼山丸無電 동十시발 [illegible] 대련환과 [illegible]

▲大連丸無電 二十一일 오전五시반 [illegible] 좌초 [illegible] 인하여 탈출하기에 상당 시간

▲小樽丸無電 동十시발 본선은 의연 전난의 위치에 잇는데 승조원은 아직 연기왕성하나 그러나 음료수가 절핍되엿다。

이제 조난선들의 승조원을 알아볼수 잇게 [illegible] 선명을 보면 아래와갓다。

▲小樽丸 千五百噸 近海郵船 ▲東榮丸 [illegible] ▲釼山丸 [illegible]

氷島幽囚의 漁夫
아해는 姙娠中
【解氷前解産하면큰일】
기쁜사리 慶事

【신의주】 [illegible] 島에 가처잇는 [illegible] 바다에 어름으로 인하야 [illegible] 비행기가 [illegible] 해빙기 [illegible] 당국은 머리를 앓고 잇다。

鎭南浦丸도 出動不能

【경무국착전】 진남포항구앞에 조난한 기선을 구조키위하야 출동한 쇄방선진남환(鎭南丸)은 도중 [illegible]

除雪하든 人夫
八十名生埋
敦賀積雪一丈六尺

【돈하전화동맹】 돈하(敦賀)를 [illegible] 수사무소관내 북륙선(北陸線) 안 [illegible] 에 제설하고 [illegible] 이 二十二일오전十시十五분 [illegible] 부 八十명이 눈덤이에 묻히게되엇다。[illegible] 명은 직시구출하엿으나 구해내지 못하야 방금一백五十명인부가 구출작업을하는중이라한다。

그리고 [illegible] 四十三명의 다수이다。

全日本氷上選手權
朝鮮選手活躍
五百米에 文君三着

【日光電話同盟】 第七回全日本氷上選手權大會第一日은 二十二日午前九時부터 日光細尾링크에서 스피ー드競技 男子五百米、五千米、女子五百米의三種目을擧行하엿다。이날아침에는 눈이 오실듯이하엿으나 天氣는 개이고조와서 컨디슌은 絶好이엿엇다。

定刻링크의 中中에서 開會式을 行하고 昨年度選手權保持者 金正淵選手가 올림픽大會出場으로 渡歐中이므로 崔龍振選手(關東)가 代理로 優勝盃를 返還하고 式을 마친後 男子五百米부터 競技를開始한바 成績은다음과같다。

◀男子五百米

一着	三代(滿洲)四十六秒四
二着	安運(滿洲)四十七秒二
三着	安重熙(關東、明大)四十七秒三
四着	金永河(關東、明大)四十七秒五
五着	大谷(滿洲)四十七秒八
六着	李仁錄(朝鮮)四十八秒
七着	張日弘(明大)
八着	崔龍振(同)
十着	許景日(同)
十三着	朱熙彥(同)
二十二着	尹世楨(同)

天氣豫報

七七六미리의 大陸高氣壓은北中國에서 朝鮮을지나 日本에퍼지고 千島方面은 低氣壓이낫다。南朝鮮은晴、湖南地方及九州、裏日本은曇、[illegible] 降雪이잇다。表日本은 日氣조코 一般으로 季節風은 나럿다。추위는 머젓다。

今朝 京城地方 晴

昨日溫度 最高 零下五度八 最低 零下十四度一

今朝 零下十四度七 正午 零下九度四

海岸流氷으로 交通杜絶

【인천】 황해연안이 동결하야 구조선까지도 가는데로 S.O.S를 치는 현상이라는데 인천항(仁川港)근해도 이피해를입어 강화도(江華島)행의 삼신기선회사(森信汽船會社) 갑제환(甲濟丸)은 거우도입구인 초지(草芝)까지 밖에는 못가는형편이며 부천 [illegible] 방면은 전연항해를 못하며 신도(信島) [illegible] 도항로선 제二통운환(第二通運丸)은 작二十一일 중도에서 도로도라왓다하는데 이것은 심한유빙의 관계도잇지만 해안이 약두께二三척으로 어러부터 육지와의연락이 전연불능한것으로 이와같은 현상은 二十년내의 처음이라하며 이것이 회복되면 일기가 난온해야 약二주일걸릴터이라 하는데 더욱구세말을 당하야 도서와의연락은 총청도 황해도등지와의 연락이 빈번하대 전연두절되어 [illegible] 객지에서 파세를하게됨뿐 아니라 하륙등의운반불능으로 곤난이 박심하다고한다。

密輸恐慌
貿易額激減

【신의주】 작년말이래 국경신의주는 은(銀)밀수입의 호경기의 뒤를이어 '밀수공황'시대의 습래를 보아 은밀수입이 끊어짐은 만주세관의 강화와 판로(販路)협소로 면견포(綿絹布)의 밀수출도 예년에비하야 격감하야 부내외와 안동에 산재하든 잠상꾼(밀수업자)들은 일조에 생계를 일코 큰 곤난에 빠저잇다。

이 밀수공황의 현상은 무역통계에도 나타나 작년총무역액을 九년것에 비하면 二백二十三천원의 감소를 보앗는데 이는 주로 수출에 잇어서 면포와 면사(綿絲)가 작년十一월 만주국의 관세개정으로 관세가 저률(低率)되기 때문에 밀수가 격감하고 종래 신의주통과를 요하든것이 일본내지로부터 직송되기 때문으로서 그 수출액은 실로 九년의 十분의一도 못된다고한다。

그러고 일시 수입부진이든 만주좁쌀은 十二월중순이래의 혹한(酷寒)으로 산지출회가 순조로되어 十二월중은 十六만三천六백八十八석에 미치엇으나 작년수입총계 四十五만 二천七백七十二석은 九년것의 약 반수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 가격에 잇어서도 작년은 재작년에 비하야 좁쌀값이 비싸섯에 돈으로는 약 七十만원정도의 감소를 보앗을 뿐이라고。

구주의사업목적

구주「예수」께서 사업을 시작하신 후에 한번은 저의 생장하신 '나사렛'성에 이르셧다 거기서 안식일을 당하야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드러가서 마츰 성경을 읽으러 고 일어스시게 되엇다 그때에 읽으신 성경은 구약「이사야」책을 읽으섯는데「주의성신이 내게 림하사 간난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보내사 사로잡힌자 다시 노히고 눈먼자로 다시 보게하고 [illegible] 를 자유케하고 주의 희년(禧年)을 전파하게하셧다」 한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바로「예수」의 사업목적을 가르친 뜻이 곳 간난한자와 사로잡힌자와 눈먼자와 눌닌자를 위하야 사업을 행하신다 함이다 그러나 사로잡히고도 사로잡힌줄 모르는자와 간난하고도 간난한줄 모르는자와 눈멀고도 눈먼줄 알지 못하는자와 눌니고도 눌닌것을 깨닷지 못하는자에게는 구주의 사업이 향연되지 안흘것이다 우리는 각각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고 구주를 영접하는 동시에 영복의 희년을 마지하사이다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 3939 1573 2088 234 振替京城

박타-레코-드
二月新譜
獨唱 내아기잘자거라 朴景嬉
故鄕의廢家 李圭南
流行歌 고닯흔신세
臙脂의그늘 金福姬
짜즈송 자미잇는노래
누가너를미드랴 李福本
新俗謠 偕老歌
青春歌 金玉眞
劇 李實卿作 피에어린師弟愛 徐一星 申銀鳳
平壤 一枚一圓
短歌 鴻門宴 李英山
俗謠 六字鈴歌 興打鈴 金玉
三重奏 鳳凰曲 醉舞袍
巫女曲 청명당 수정
佛歌 祝願 고사 河龍閣

京城販賣所 【電光七三〇番】

長生不老도陽氣가조아야!! 大業成就도陽氣가조아야! 陽虛한男子는生不如死다速히이一樺太廳官營採取品인
眞品 海狗腎을 服用하라
本品은補精腎氣强壯에神秘的靈効가有한바北洋寒帶地方의産物을樺太廳에서官營으로捕獲하야同廳水産物檢査所에서嚴正檢査證明한世界的高貴의眞品이라一服하시면ㅣ神効함은能히料量하실것이외다求服을願하시는분은說明書請求次第呈進함
發賣元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釜山府草梁町三三二番地ノ三 電話一二一二九番 振替釜山七九一二番

ライトインキ
化學의極致
現代에이것以上의品質은不可能!!
天下一品! 一家一瓶!
大小 全國 및 文具 店에 有
2オンス入 (スポイト付) 正價30セン
RIGHT
ライトインキ本舖 ライトインキ製造株式會社

皮膚 泌尿 花柳病 醫學博士渡邊晋
廣林商會
東京消息
納言專門醫院
말티
ますらを8
パワリイ11
京城劇場 【電光二二五四番】

學藝

新春創作時評 (三)
푸로文學作品·其他
◇……李鍾洙

푸로文學作品은 어떠한 作品을 읽어 말하는것인가?이서울 ……

[illegible]

「現代의序曲」(新朝鮮) 李北鳴
「叫聲」(新朝鮮) 朴勝極
「貴婦」(朝鮮文壇) 朴勝極
「故郷없는사람들」(新東亞) 朴花城
「홍가사리」(新家庭) 朴花城

[illegible]

藏書札이야기
Ex Libris
①……李卯默

「엑쓰·리부리스」라는 말은 拉丁語로 「冊中에서」라는 意味인데 ……

[illegible]

印刷와使用을

[illegible]

눈꺼지안흔것

[illegible]

印章보다複雜

[illegible]

十五世紀後葉

[illegible]

例一의스리브리·스엑
(氏默卯李)

發聲映畫를 新義州에서作成

[illegible]

最近史上의三丙年 (其三)
丙子年開國史話 (一)
(十四) 李瑄根

(가) 開國前의內外情勢

[illegible]

傳統과技巧問題
言語의文化的文學的再認識
◎ 金文輯

[illegible]

埃及「바로」의 厭棄하는敎令

[illegible]

樂浪의三債

二、瓦片

한만튼이야기
흥겹든이야기
서글든이야기
이야기! 어야기! 어야기!
말없이 들리어 그— 수—만흔 이야기!
입벌에 그처럼 상처를 밧고서도
꽉— 다물고 지켜온 그대의 沈默
풍운 그처럼 깨서온것이런가
沈默은 그처럼 무거운것이런가
나는 오날도 그대를 달래여
예人이야기를 조르고 잇노니

=趙碧岩=

취갯는生人 (17)
老人夫
李北鳴

[illegible]

化學戰이야기 (6)

燒夷劑

[illegible]

◇火焰에對하야

[illegible]

◇小銃에對하야

[illegible]

漢詩
棠白散人選

鶴 (擇拔) 選外
洪州郡邑內三興普通院 李鍾輔

晴沙移步篆成紋、
雞與蘆花月色分。
老古頂丹千試日、
聯翩羽白九霄雲。
儒遊赤壁曙鳴過、
客到孤山飛報聞。
高潔淸閑自天性、
昂然卓立不鷄群。

評曰。[illegible]

海外學藝뉴—스 (一)
蘇聯繪畫展覽會

[illegible]

漢詩募集
雪竹 (押) 「香」
期限 陰正月十日

讀書案內 運搬을길은 스—코—키스

회충을구제하라

十錢마구닌錠·마구닌제리 【專賣特許】

마구닌錠

健康은 蛔虫驅除부터
健康파發育을阻害하는蛔虫을撲滅합시다
副作用없고、不快한感이없는世界的蛔虫藥「마구닌」을每朝一次服用하야蛔虫을驅除하고豫防합시다

마구닌錠 三〇錠 七五錢 一圓
마구닌제리 二〇錢 一圓 五十錢 二圓
十錢마구닌錠 (大人一日量)

特別論文

農村夜學의 育成策

(四)……宋柱星

三、敎授方法論

于先「가르친다」는 말을 알게됨에 本質가 잇는것이다。알게할때는 알리는지 먼저 알어야겟고 그리하야 그것을 알리려하는 媒介的行爲、어떤 中間的手段을 밟어야할것이다。이 中間的手段의 形態를 이룬바 敎授의 方法이라하는것이다。그러므로 그 方法의 巧拙과 優劣은 가르침에 對한 重大한 結果를 나타내게되는것이다。이에 敎授方法問題란 敎育에 잇어서 가장 重大한 所任을 가저오게되는것이 事實이다。따라서 敎授法의 硏究는 敎育의 本領에 잇어서 한 中心問題를 이루는것이어서、事實 이제 敎育의 原理를 論할진대 거이 그 가진바 敎授的手腕이 어떠함에 依해버린한것이다。

본시 敎授法이란 한 技術的性質을 띈것으로서、이를 제대로 하려할진대、相當한 經驗을 要하지안하서는 아니되는것이다。한번의 敎授的經驗이 없이 敎授에 선다할진대、이는 空然히 理想하기어려운 一種無味에 가까운것이라아니할수 없다。더구나 現在에 稱하는 一般的敎授方法에 없는 農村夜學의 敎授方法을 몰수업슴에 잇어서는、상당히 머미들것이라 할것이다。그러나 나는 이마 本問題의 根本的方法의 하나로서 第一科目의 實地를 主軸하는바이니와、다못 한과의 初步를 계발하려할진대 오로지 一般的本質을 [illegible]하고 敎授方法의 대강을 말하다면 그리 뭇할일도아니요 어려운일도 아니겟다。다음에 나의 平素 알던어오던바 못하던바를 적어 보고저한다。

ㄱ、夜學敎授의 本質

夜學敎授는 普通學校의 根本取扱과는本質에있어서 달라이된다。대저 讀力、讀本 敎授의 目的하는바는、言語、文字、文章、三方面에 잇을것이다。그러므로 [illegible] 實際는 다모 크게 서로 關시커하지안흠이 아니된다。이제 讀本敎授의 實際方面을 살펴 보건대、그 主義가 三方面을 向하야 잇다고 볼수잇는데、첫재로는 形式中心取扱이엇으니、이는 言語 文字 文章의 形式的價値를 敎授의 目標로 하려함이엇으니、따라서 形式的方面인 話法(文字)의 읽기와 뜻과쓰기를 中心으로 取扱함이엇다。그다음 둘재로 內容中心取扱이엇으니、이는 言語文字 文章에 內在한 內的價値를 目標로 함에서、곧 「글」에 包含된 意味思想을 爲主하다는것 이엇다。이러한 兩面은 結局 折衷說 이라할 綜合說에 依하여 그서로 가진바 缺點을 是正하게 되엇으니、이는 곧 形式을 떠나 內容이 없으며 內容을 떠나 形式이 없다하여、形式과內容의 그 어느편으로도 치우치지안코、一體로 取扱하자는 것이다。그러므로 [illegible] 言語、文字、文章을 融合하야 取扱하는 敎授法에到達되어잇는것이다。그런데 夜學에서의 敎授의 實際點은 그와는 相當히 달라지는것이니 그는 單純한 文字解得을 爲主하는데서 文字敎授만을 取扱함에잇는것이다。그러므로 夜學敎授의 實際點은 嚴密한 意味에서 前紀三目的中에 그 形式的方面인 文字敎授에 잇다할 이다。

文字敎授가 夜學敎授의 任務라면 다음에 올것은 어떠케 가르처야할것이냐는 實質問題이다。이에 實地敎授의 方法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文字敎授의 過去變遷을 살펴볼必要를 느끼는것이다。이제우리 한글과 本質上 同位的인西洋文字(알파베트)의 敎授法의 變遷狀態를 밝히므로써 우리의取할바에資하고저한다。

ㄴ、西洋에 잇어서의 文字敎授의 變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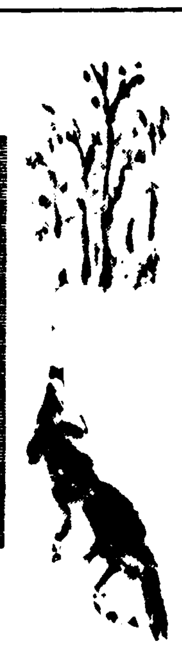
이에 對하여 佐佐木氏著「小學校敎授法沿革史」에 所述한바를보건대 그 變遷에 잇어서 몃가지階段을 거처 왓다고 볼수잇으니、첫재로「綴字法」──이라함은 우선 알파베트의 形과名을 [illegible] 그 綴法을 가르처──單語──文章에도 進展시기는 法이엇다。그러나 이方法은너무 乾燥無味하다하여、「音讀法」의 發生을 보게된것이니、이法은 字形을 提示하야 이것을 씨우고 읽혀서 그 音을가르친후 他字와 結合하여 語로 進展시기는 方法으로서、前者에 견주어 보면 퍽趣味的이라할것이다。이와 同時에 한、語를 分解하여 그語를 構成하는 一音一字로서그 읽는법 쓰는법을 가르친후 나종에 그것들을 綜合하여 元語로 還元시기는 「分解綜合法」을實施케 된것이다。이것이 이른바綴話法으로서、文字 그것만을 單獨으로 取扱치안코 어떤實質을代表하는語와 關聯시켜 取扱하는것임을 알수잇다。그러면 우리한글의 敎授法은 過去에 잇어서 어떠하엿으며、또한 어떤법이어야 할것이냐?이는 자못 重大한 問題로서、이를 생각함에는 먼저 우리글의 本質을 밝히지안흘수없다。

ㄷ、한글의 本質。世界의 文字를 그 構造와 性質로 大別하면 두가지로 나눌수 잇으니 곧 表意文字와 表音文字이다。그中에서 [illegible] 表音文字中에도 字母文字이다。이를 表解하면

(一) 表意文字(뜻글) 1、繪畫文字 2、象形文字─未開人種の[illegible] 3、[illegible]形文字…漢文

(二) 表音文字(소리글) 1 一字一語…滿蒙語 2 一字一音節…假名 3 一音一音 歐文…字母音同位的 朝鮮語…字母音從屬的

이것으로보면 한글은 表音文字이요 같은表音文字로되 一字一音節인(한소리 덩어리에 한소리記號된것…소리를 分석지안흠)假名와도달라 一字一音을나타내는字母文字이니(嚴密히 말한다면 音素文字)世界文字中發達段階에 잇어서第一位의 文字이다。본시 字母文字는發音이 複雜한 言語에 適合하고音節文字는 發音이 單純한 言語에適合한것이다 이를 實例上으로보드라도 [illegible] 語音에 依하면 國語의 音數는 七十餘音에 對하야 朝鮮音數는 八千七百八十餘音이라 하다要컨대 우리글은 複雜한 우리語音을 表徵하는데 가장 妙하게된 字母文字임을 밝히알것이다。



當選文藝特輯

(17)

當選戱曲

村先生 (全三幕)

(16) 李光來

【禁‖無‖斷‖上‖演】

第三幕 (5)

先生。아니요。분통이 터저……(속이타서 말을 잡하지못한다) 이놈들을 당장 혼을내서 버릇을고처노아야지。(부엌房으로 들어간다)

達龍。허─저선생이 기어코 남장을 볼모양이야 저 심머에 읍내 나가기만하면 발잇이 무슨일이생기고 말걸。

聖姬。아버지도 망령이시지。오름 내는 짐하려가요。예초에 빗내 쓴것이 잘못이지。

達龍。왁 어니 누구때문에 빗내 쓴건데요?방성떨온 일이 광주리발 갑에도 무밭못하낸다。

聖姬。뭐요?무슨 까닭으로?

達龍。모도 서울이씨 서울서방님 오셔서인줄 엇대 몰룻소?당신 관재럽 똑똑하고 영리하고 세상것을 다아는 서울양반들이。

聖姬。온세상에!아니여보 당신 맘이 언제 그리전 한문이나 남주어밧수?자기내들 잘못으로 논밭을떠고 무지한아반지럼 사식을 팔어먹으면서도 누군한방하는거요?

達龍。여보!」만해두!요나 숨넘아주오?

聖姬。언갓 하내들하고 속도특부려어。 ?

達龍。글세」만 해두라니까。봄에 한기가 드는구려。어서요나 숨 함이 수어요。

(이때 郵便配達夫가 出入口로 登場)

配達夫。宋達龍씨 도장내시요。

達龍。옹!도장?

配達夫。네 서류가 왓읍니다。

達龍。(기뻐하며) 돈이왓구나 돈이。

聖姬。그밖에 다른건 안왓수?

配達夫。네 소포도 왓읍니다。

聖姬。소포요?

(郵便配達夫가 져온 小包봉지를 끄낸다)

聖姬。에재개!요게뭘이요?

配達夫。네 다른건 없읍니다。

(聖姬는 失望한듯한빛이 보인다)

達龍。여보 소포고 뭐고 도장어따두엇소?

聖姬。당신도장 내가알우?

(達龍이 房으로 뛰어들어가 분주히 도장을찾는다)

聖姬。여보!편지나 이리내우(便紙를받어 皮封을뜯는다)

達龍。돈이얼마나 왓소?안성마춤으로 때마처왓네그려。이럽때 저런돈은 생부처보담 더고맙단말이야。남의일이라도 신명이나네 신명이나。聖姬는취정하던 말이야 장해。선생님도 기고만장하셋구먼。나는 이런 재미를보나。

聖姬。(편지를 읽다가) 그러면 그러치。아이구 좃아!(다시기뻐한다)

達龍。(도장을 찾어가지고나오며) 여보편지에 뭐라고 햇소?이리내요어서。

聖姬。人參열근을 소포로 보냇구려 어린애섯과 내서울 옷감은 외철도화물로 보낸다구요。」 어린애 언제낫느냐고요 가만잇자 그러니까 내달이 순산달이지 여보?

達龍。고맙게 없는 소리말고 돈이모도 얼마요?[illegible] 아버지어서나오시라고여주어라어서

聖姬。자─들어봐요。「만일 시실생활이 고달프거던 바침소를위시시리가 잇으니 시시 상경하라」

達龍。(싱글벙글웃으며) 운상인 영감두 망령이시지。언제 우리가 그런말해본적이 잇나。

聖姬。그럼 밥맛무미건조하고 몸 취미한 여기서 살테요?나는인제이수 진절머리가 나서여기서 더못살겟소。

配達夫 허─참、도장은 어떠케 햇소?

達龍 참 도장을……(도장을내준다)

(配達夫가 도장을 찍는동안 누군지 上手에서 욕질하는소래 때리는소래 들린다)

區長 어느놈이 또 싸움을하나 뵈

聖姬 엇소 편지。좀읽어봐요 어떤가。

(達龍이가 便紙를 받엇을때 粉伊父가 致三이 머리채를잡고 욕질을하며 上手에서 나온다。一同川入口로 불려간다。達龍이 반 마루에서 便紙를쥐채 바라본다)

粉伊父 이죽일놈이 이놈아。(때린다)

致三 아이ㄱ 살려주소。나는 아무 죄도없소 용수가……

區長 崔僉知 무슨일이요?

粉伊父 區長영감 잘맛낫소。이런 세상에 죽일놈들이잇소?네이 도적놈(또때린다)

區長 무슨일인지 말을하소。

粉伊父 영감 아들과 어놈이로짜고 내딸년을 감보로 팔아먹을려고……。

區長 이게 무슨소리요?놈이 粉伊를……?

致三。아이구 그런게 아니라 區長나리。朋洙가粉伊를 로다리고 오라고……

粉伊父。이멀정한도적놈아 문 읍내滿人놈한테 웬돈(六十圓)을받어 먹엇노?粉伊를죽여서 대국 천진에 팔아 먹을려고 햇답서?

區長。저런 주리를틀놈들 가만잇소 崔僉知。선생님네로 방금 시끄러운판이니까 저동사로 나갑시다。(앞서간다)

粉伊父。이놈아 가자!어느놈이 죽든지 감옥소콩밥을 먹이든지 기어히 해볼껀께。(致三이를 끌고 下手로 나간다)

乙洙。내 어떻좀잇아다께。가 구일을저질럿구먼(뛰따러간다)

(聖姬、玉井、聖根이만남고모다退場)

當選씨나리오

禁無斷撮影

黃昏 (씨나리오)

● 朴民天

‖성구의집

─정숙이 분이를 다리우에 안고 옹옹하며 어른다

─정숙이 어린애를 노려본다

─정숙의눈 무엇을 삼킬듯이 이상 하여진다(大寫)

─정숙이 무엇을 노려보다가갑자기웃는다

─분이의목을 간지린다 어린애가 빽긋웃는다

─웃는것을보고 더간지린다。나중에 어린애가 얼굴을 찡그리고울려한다

(정숙과 분으로부터 카메라後退)

─성구가 들어온다

(우물) 소는 바로 삿다 수엇세요

─성구의아버지。작부심을 빈수로 우물을 따우며 일즉이 마첫구나 하는 얼굴로성구를 마지한다

─성구 가래를가지고 집뒤로간다。

─성구 가래를들고 가다가 정숙이를 본다

─성구 집뒤으로 가 버린다。

─정숙 분이를 또 노려본다。

─분이의 목을 처음에는 간지리다가 나중에는 목을 두손으로 막놀른다。

─분이가 몸부림 친다。

─이때에 커다란 개가 조고마한 색거갱이 지붕 물고뜻는것이 보인다。

─정숙이 소래놉게 웃는다(大寫─O‧L)

‖집 후면

─성구 웃음소리에 고개를 휘둘린다。

─가래를 세워놓고 앞으로 뛰여 나온다。

─정숙이를 바라보는 성구의 눈이 둥그래진다。

─정숙이가 분이의 목을 눌르고잇다。

─성구 달려 들어 분이를 빼서안는다。

─분이 몸이나두루 운다(大寫)

─정숙이 성구에게 달려들어 분이를 빼으려한다

─성구 분이를안고 아버지 엽으로간다 성구이니가 뛰다

(카메라移動하여 아버지와 갔은 자태가 성구와 다리 사이를통하여 보이도록 近寫)

─성구의 아버지와 얼굴 뒤일후 사람같다

(溶暗)

‖눈스트링(溶明)

─성구의아버지가 쓰던 보릿집이 눈에 잘 띈다(카메라 移動)

─큰 느트나무。해에쪼여 곤하게 보이는

─개미가 사는사람다리에 기여올러간다

─세 사람이 곤하게 잠이드릿다

비고누운머리 그리고 또 좋아난 나무뿌리를 비고누은머리

나무밑 카메라 撮影하야 나무밑에서 리까지近寫

─몸을 비고잇는 머리 그리고발등 바로가지로 맨든 농촌특유한 점심그릇

─다리를 들어 논는다

─쪼이는 나무뇌 틈물(카메라、撮帳)

─성구가 갑작놀라 일어앉는다

─틈임이 잇음에도 불구하고 눈초리는 매우 긴장하여진다

─성구 일어서더니 옆을 노라보고 다름바질을 하여간다(카메라移動)

─山、나무、밭、논이 성구앞으로 달려온다。

─성구가 카메라앞으로 다라온다

─성구의 얼굴이 불안과초조에 싸엿다

─성구 갑작이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다름박질을 머람고 두어걸음 물러선다

─성구의 눈앞에 정숙이가 분이를 술속에 너코 뜨겁을 날홈다음 부어에불을때는 것이 보인다。

─분이의 우는 얼굴(大寫)

─정숙이 미처 웃는얼굴(大寫)이 성구의 머리우를 다라난다。

─성구 또 달아간다(카메라移動)

─성구의손에는 점심밥그릇이 그냥 쥐엿다。

─그것도 모르고 정채 달아나는 성구

─초가집 즐은길이 배후로 다라난다。

─성구의 발이 성구집 실치와에 멈출어선다。(카메라移動)

스틸 點描……金 英 砂

撮影─大阪婦人寫眞館

佳作小說

卒哭祭

❶ 飛石生

3

맺남후엇다。저녁을 바치르고 벗설거지를 하고잇노라니 피납루라는 별명을 가진 노파가 찾어왓다。

「어서 들어오시우 우리집문턱이 낫어젓나 아조머니가 어떠케 이러게」

언삼은 가싯물에 절그릇을 씻다말고 손을 통주에 담근채 노파에게 허리를 굽실하며 어설궂게 말한다。

「그새 잘잇엇소?어!참저거 바!홀에비 살림이 가엽군!설거지도 다 제손으로 하고!호호호호호!사내 설거지하는 꼴이라구야!그릇에서 ×내음새 나겟군 그래 호호」

오십줄을 넘은 노파는 새룩새룩 주름살진 얼굴을 더 구겨서 웃어대다。

「아조머니두 원 하하 그걸 보 못찹구잇기에 내옴세가 나겟수?」

「오즘은 안두나 원?호호 그래두 홀에비것이 되서 하핀치는 안켓군!참 세상엔 홀에비처럼 불상한건 또없어!입성을 뻬맨래루 그러구 밥짓는때무 그러군」

노파는 은근히 음성을 낮추어 정사무한 태도를 보인다。

「불상허니 어떠허우?」

언삼은 가만잇을수가 없어서 댓구를 노하다。

「어떠허긴?웨 에미네가 없어서!밥해 재이는것이 맨 게집년인데」

「아조머니 밥해 재이는것은 여편네지만 내밥에야 어디채워야지요」

「글세 그만두─사내루 생겨나서 사새기에 ××탈구 에미네없이 산다는게야 말인가 원!」

「허허!그러치만──」

언삼은 다음대답이 없엇다。따는 그럴상도 싶엇다。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때 자기하테 을 버린데는 잇을상 싶지안엇다。잠간 침묵이 계속되엿다。

「여보!장손아범!」

노파는 목성을 나추어、웃목 언삼에게로 다어앉으며 은근한태도를 보인다。

「예?」

언삼은 무슨일인가 몰라 숙엿든 고개를 번적들어 노파를 처다보앗다。

「장손아범두 그냥 홀에비로는 살수없는게 아니요 과부티는없어두 홀에비내음새는 코리타분하다구 영 홀에비로 살수야 없지、장가오 말이야 바른대루 아따 어적두 나허 사십이엿다 질심을 산다손치드라두 아직 삼십이면이 남엇으니 웨 홀에비로 늙것소?그러기 장가를 드는것이 어떠냐말이유?」

노파는 신이나서 눈을 깜빡깜빡하고 입을 실룩실룩하면서 연 손짓을 하여 타일럿한다。언삼은 지금것 생각지도 안엇고 또 생각한다야 쓸데없는 일이라구만 하엿다。언삼은 홍!코웃음 하면 어떤 일을 감자기 트게되니 어찌 대답 해야 좋을지 몰라 어리둥절 하여 거길까지 붉어지는 얼굴을 숙여버렷다。

「장손아범 생각은 어떻수?여보글세 우물쭈물할게 뭐요。홀에비 장가는것쯤이야 당연에 웃당연이지」

노파는 장손아범의 옆모습을 할금히 바라보며 대답을 기대린다。언삼의 가슴은 갑작철렁하여 진정되지 안헛다。이때껏 생각해본일은 없엇지만 정작 예거를 듣고보니 미상불 녀편네가 얻고싶지 안은것도 아니엇다。언삼은 여편네가 잇으면 위선밥짓기와 옷근심은 면할수 잇으려니 생각하여 하니 언어볼가 하는 맘가지 들엇다。게다가 그동안은 살림에 너무쪼들리고 죽은안해생각때문에 특별히 괴로운 적이 없엇지만 지금 여편네말이 피여오르는 정욕을 위하여서도 없어서는 안될것같엇다。

「글세 어느 여편네가 나한테 온답디까?홀사람이 잇어야 얻지안수?」

언삼은 불숙 이렇게말하며 제편 적은 낫을감추기위하여 감마루에 향하여 때렵지도 안흔 코를 킹!하고풀엇다。

「없긴 웨없다구 그러우?」

노파는 놀래는 기색을짓고나서 다시 좀더 다어앉으며 음성을 나추어

「내가 탈래온게아니라 지금 동안에 나허 설흔네살먹은과부가잇는데 그래 그과부와 장손아범과 어떠케 맛부처볼가하구 온게야。그색시루 호호호 참 말색시지 꽐그래 아직 설흔넷이지만 이십안짝으로밖에 안보이이지──그과부가 즉 내 시누이의딸이야。이태전에 서방이 염병으로죽고 여때것 혼자서 버

各學校入學須知 (四)

中央保育學校

一、人員。四十名(十六歲以上三十歲未滿의 修業年限四年의 女子高普卒業程度)

一、科目。女子高普卒業生은口頭試問과身體檢査이고其他는 國語、代數、地理、博物、理科

一、期日。三月十一日四月一日

一、出願。試驗前日까지

同德女子高普

一、人員 百名

一、科目 國語、算術(資格試驗에는朝鮮、國史、地理、理科도잇음)

一、期日 三月十一、十二日

一、出願 三月十日까지、受驗料二圓

京城帝大醫學部

一、人員 資格、約六十名、高等學校理科卒業者

一、科目 外國語(英或獨)、物理化學、動植物

一、期日及場所 三月二十四、五兩日間同學部及東京帝大醫學部

一、出願 二月十五日限、出身學校經由提出

全州公立農業

一、人員 約五十名(年限五年)

一、科目 國語、算術

一、期日 三月十六日부터四日間

一、出願 二月末日限

會寧公立商業校

一、人員 五十名

一、科目 國語、算術

一、期日 三月十九、二十日午前九時

一、出願 三月十五日까지

釜山第一公立商業

一、人員 百名

一、科目 國語、算術

一、期日 三月十二、三、四日

一、出願 二月二十九日

禮山公立農業

一、人員 五十名

一、科目 國語 算術

一、期日 三月十一、二、三日

一、出願 三月五日까지

海員養成所

(慶南鎭海邑[illegible])

一、人員 航海科二十名 機關科二十名

一、年限 七年(本科四年、練習科三年)

一、科目 國語 作文及算術

一、期日 三月二十四、五、六日

一、出願 三月十日

新刊紹介

▲宗敎時報 第三十八號 定價五錢 發行所 京城鍾路二丁目九一 宗敎時報社 振替 京城二一五九○番

▲基督申報 一月十五日號 定價五錢 發行所 京城齋松洞一六 基督申報社 振替 京城三○八六番

▲젊은그들(金東仁等) 일즉이 本報에 連載되어 好評을 방은 小說이다。定價 一圓八十錢 發行所京城鍾路二丁目四五 野談社振替京城一八三八番

▲滿鮮之齒界 一月號 定價三十錢 發行所 京城大和町二丁目七ノ一 滿鮮之齒界社 振替京城一三八五四番

▲一光 第六號 定價二十錢 發行所京城崇一洞二 中央佛敎專門學校校友會

▲主日學校申報 新年號 定價四錢 發行所 京城府齋路二丁目九一 朝鮮主日學校聯合會 振替京城一四六三八番

▲半島時報 第二十八號 定價五錢 發行所 平壤府將別里三一 半島時報社

▲徽文 十三號 發行所 京城苑洞二○六 徽文高普文友會 學藝部

▲慶南評論 十八號 定價十錢 發行所 晉州邑榮町二三 慶南評論社

▲春風 (映畵小說) 安夕影作 定價八十錢 發行所 京城西大門町一丁目七九番地 博文書館 振替京城一七一五九番

▲대머리百萬風 (申不出作) 定價八十錢 發行所 京城西大門町一丁目七九 博文書館 振替京城、七一五九番

▲野談 一月號 白沙에 뿔린 鮮血將軍等 無名將軍等 其他 定價 二十錢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四五 野談社 振替京城一一八三八番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新式速成 珠算獨習の秘訣

■解で極意公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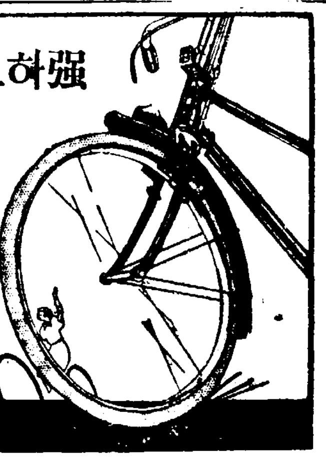
大景品

珠算 原理速成術 九九原理

極上等算盤

特價一圓

現代出版社



强하고 得인

富士 自轉車

昭和十一年은 强하게、輕하고 三年、五年의耐久力잇는 富士號使用으로一決

富士號의 富士다이야는 富士自身의고무工場에서 두탑고 달지안코、곤이저지안케 科學式三重製造法으로精製한物品입니다。고무工場을併有한自轉車工場은世界中에富士社、단一社뿐입니다。

製造 大日本自轉車會社

發賣 株式會社 日米商店

京城支店 黃金町一

東京 名古屋 大阪 福岡 台北

金 銀 福 白 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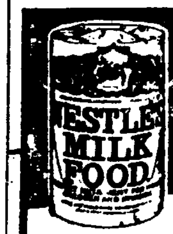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 [illegible]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ヘイセウイ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御禮景品呈上 及ネツスルミルクフード 넷슬밀크푸드

수리표우유 ワシミルク



育兒에最良

壹等 參百名 金千五百圓割增金附復興債券 壹枚

貳等 參百名

參等 六百名

四等 五千名

五等

보내는法 ネツスル會社景品係 神戶市神戶區 [illegible] 郵便私書函四十七

締切 昭和十一年三月末日

抽籤 昭和十一年四月一日 神戶에서擧行

當籤番號發表 昭和十一年四月十日發行 東亞日報紙上으로 發表

商品모도藥店食料品店에서 販賣합니다

부형이철없이떠드는 입학시험준비 (下)

준비교육은 아모소용없고 실력대로 입학시켜야한다

준비교육취체 하는정신을알자

어떠한교육 물론하고 불완전한이 되면 당연선생들이 벌가는줄모르고 준비교육에 열중하는데 이것은 부형으로는 다시없는고마운일이라 하겟지만은 그반면에해로운일이 한두가지가아님으로 문부성에서는 절대로준비교육을 취체하기로되어 금년봄의생은 준비교육을 받지아니하고 이번입학시험을 치르게되는것입니다 여기대한 결과와성적이 어떠할지는 아즉예측하지못하거니와 반드시 실험이었는 성적이 나타나리라고 믿는바입니다. 하문부에서 절대로 취체하는원인은 여러가지가잇으니 보통학교五、六학년정도는 남마다 자기가맡은 공과를공부하는데 충분한것이니 종합제하과를다마치고 다시 두시간세시간식 다시준비교육을 시키는것은 어린이에게 너머과한부담이오 또건강이 도저히 계속할수없는것으로 시험전후에 병이나고야마는 것을 우려한점에잇고 또입학시험과목이일정해있는고로 별과목에만 흥미를쓰고 다른과목에는 등한하는고로 입학시험에는 입격이되나 입학된후에는 정도가 떨어지는경우가 잇게되므로 평상시에는 평균한 공부를 하도록함이오 그다음에는 하과에대하야 진실로 연구하는태도와 또는 상급한문제라도 참으로 자기것을 맨들지못하고 상식문제를 암기하는식으로 되어 고등한문제까지 알기는알면서 참뜻을 아는아이가적으니 이것이 준비교육에 폐단이라아니 할수없으므로 여러가지를 종합하야 절대로 자신의 실력으로 입학이되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하부형에서 여러가지우려하는점이잇어 준비교육에 대한 취체를하야 하교에서 준비교육하게되니까 그대신 이염상이 가정으로 옮기어간듯 싶습니다. 부형들은 입학시험만 생각하야 무리로 공부를시키고 시험과목만 복습을 시키는동으로 어린아이들을 들볶기는일이 허구한 것을 보게됩니다.

아이들과가치 떠들지안도록

시험때가 도라오게되면 시험을치르라는 당자들도 마음이 나사이 못되어 허둥지둥하고 애를쓰면서 마음이 조조해서 견디지못하는데 부형은 거기다가 기름을붓고부채질을하는셈이되어 당자들보다 몇갑절이나 이러케되면 어디로보나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녀를통솔 위로하고 이해하야 동정하는생각으로 위안해주기면서 조용히도록 하여야 될것입니다.

위험만하면 되는동안 그러니까이번에 입하지못하면 죽을뻔하여아니한다는지 네릇을해주나보아라—하는등으로 협박을해서 참으로 시험이란 시오관 같다는것을 인식시키는것은 부형의 큰잘못입니다.

수험자의심득

그다음에 시험을 치르게된이하생들의 주의할것은 여러가지가 잇으나 첫재로 몸을 단장하는데 주의할것입니다. 평시에 아모리 얌전치 아니한 하생이라도 시험당일만은 좀얌전하게 몸을 단정히할필요가 잇으니 몸을바르고 향수를 뿌리라는 말이아니라 머리를 단정하게빗고 치마주름이터진데없이 깨끗하여야 할것이며 양말이라든가 구두를깨끗이 닥거신어야합니다.

두통 깨끗이나어서야 합니다 시험을보는 선생들은 벌서아생들의태도를 면저보는것이오 그다음에는 답안을가지고 가는틀린데대하야 주의를 할것이니 준비가없이 떠들어대다가 수험장(受驗場)에들어갓다가 가저러가는것이라든지 연필이나 고무를잇고연동것입니다.

시험답안에대하야

모화해 엽어쓰는것이라든지 일필 이러한것은 벌서성적에 영향되는것인줄압니다.

시험문제를 보거든 먼저조사할것은 그중에될수잇는 문제를먼저 입어보고 쓸것이오 좀어려운문제는사서생각을해서 써야하나니 어려운문제 가지고생각만하다가 시간이 지내면 쉬운대답도못하게됩니다.

그리고 답안은 처음이나 나종이나 입어보시요 글씨하게 고르게쓸것이니 처음에는 글씨하게썻다가나종에 좀을못해서 깨끗보기는 일은재미없읍니다.

선생은 답안을 고사하기전에모양을먼저보는것이니까 너머더러우면 처음부터 보지도안는것이올시다 시험답안을 이러케더럽게쓰는 사람이면 만사에 가망이 없을사람이니까요 사람으로 벌서낙제가되는것입니다.

모든점에잇어서 무리가없이 평소에자기의 실력대로 성의를다할것입니다.

우리는쥐를잡시다 (四)

귀염받는쥐도잇으나 죽이기위한귀염이오

코키리도 죽인일이잇어

우리 동무중에 사람들한테 귀염받는 동모가 잇읍니다 그놈은 그―일 쥐라고 해서 외아상시험 동물로 기르지마는 우리동모중에서는 제일사랑을 받는데 그 반면에 참혹하게는 기르다가 시험을 하다 죽여버리는 것이어요 사람들은 똥아니먹고사는줄아시오? 허다못해이놈을다 쓸고 세신을 가슴아해는데요 얼마나 쓸기린지 하하는지 살아잇는동물을 쓰는돈 코 우리같이미움을 받으며 쫓겨 이니 이런사람은 아니받어도 조 대로 실험하다 죽여버리는 것이어요 동일이띠사람이 아무리가 코기리를 길렀는데어―날밤 우리동모가 코끼리자는데 밥속에 들어갓더니 얼마후에 그것으로인하야 죽엇드랍니다 어떠한 동물이던지 우리동모들이 넘벼들기 그러데 여러분도 아시는바와같이 우리서의 날긴들을 잘 쏠아내는 입니다 시설중에도 못먹는것이 없고 나게되고 양복단추가 벗어진것없 이 모지에 표표를하신이세날고구.

전화의소음을 막을수잇는방법

저편과전화를할수위에서 때로 떠드는것때문에소음이 때로 들리는 고말이 잘들리지아니하는 경우에 그림에 보이는것과같이 송화기(送話器) 수화기(受話器)를 대게되면선으로 통하는 소음이 이저편쪽에 들리는 고로저편에서 사고중에서 떠드는것을 알고 수화를 시키는 수가 잇읍니다.

사탑인가 물고긴가

유행이라면 사지로 못쓰는 양키양반들이 어디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유행할해수욕복(海水浴服) 품평회에 출장한마네킹양인데 보이어느 한것입니다.

신도께도리로만 (三)

남편조종하는술법

감정에치우치지말어

남편이 좋인사변일을 집에와서 이야기하는것을 중간에서 이야기하는것을 중간에서 흥이없이 잘듣는 니다. 조흔이야기뿐 아니라 남편의 괴로워하는 이야기던지 안해를상대로 간청을맨드는 원인이됩니다.

남자는누구나 재미대로 하기를 소원하며 자기의감정을 표현하는데는 그것을 아모소리없이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안해의감정은 의특중이라 하겟습니다.

그와반대로 안해되는이는 경혼해버리면 남편이 결혼전과같은열정이 점점없어 지는것같이서 침착한태도를 냉정하게 보는수가잇고 그러케되면 남편에게 대한 의심을 갖게되면서 침착성을잃게 되는고로 남편을 자기한테서 나지안케하라고 여러가지 수단을 쓰는일이 잇으니 남편에게는 이 해버리면 ...

歌鬪와擲柶의밤을앞두고 (一)

興味津津한競技方法

紅白軍의便戰과選手의個人戰

본사에서부가 여러분 가정부인의 우리정초 노리로 아주 더럽나 위없게 자미잇고 실익이 만흘뿐 아니라 또한 가정에서 가장과 더부러 혹은 귀여운 따님이며 아드님과함께 노실수잇는 다시없는 윷노리를하게될날도바로정월초사이 시조를 읽고 듣고 찾어내는 놀이가 이것도 그금피입니다. 이 안에 아직못하는 가운데 시조의 오묘한 맛이며 그뜻이며 한수나 두셋수씩을 외이게되고 또 감추록 머리에 남어잇어 다시 말하면 이 시조노리를 하로밤하고 나서 시조라고는 도무지 모르든 가정부인이 한두마디 시조라도 외이시게 되어가지고 돌아가게될것입니다.

이제 이러케 자미잇게 보낼 부인여 보는조비가 잇어서 부르이 신청의 기한중한바 이날이 바로 내일(양력 二十三일) 오후네시까지로 남처잇습니다. 원래 윷노리에대해서는 아마모르시는분이없을 정도로 다잘알으시겟습니다만 첫날에 행할 시조노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아를 가지시는분이 만흔신모양 입니다.

시조노리는 그다지 널리알려지지 안엇음으로 그 하는방법을 모르셔서 때문힐것입니다. 그러나 조선글 언문만아시면 누구나 이 노리를 하실수잇게 됩니다. 오히려 잘하는이보다도 서투른이에게 한층더 자미가 진진한것입니다.

×

그러면 시조노리와 윷노리를동안을 본사하에부가 주최한것은 아주성질하는 이보다도 잘못하는이를 위하야 이방면에 취미를 가지시도록 하자는것이 우 다. 이것이 한해가고 두해가는 선제一회 대회인만큼 주지입니다 동안에 훨신 진보되고 제절로 정한 잘하게되는주가 생겨날것이며 이에따라서 제절로 시조 백수쯤은 모두 외이시게 될것입니다.

첫날 시조노리는 머리를쓰는 노리요 둘재날 윷노리는 얼마간 기운을쓰는 노리라 누구시나 아픔없이 노리를 자미잇게 보내시기를 전함에 조금도 서슴지안습니다.

이제 시조노리하는 방법을 오늘 소개하고 내일은 어떠케하면 시조노리를 잘할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여유가잇으면 윷은 어떠케 노리하는가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려 합니다.

×

우리가 시조노리정원을 一백명 한도로 하엿으니까 一백명으로 이야기하겟습니다. 우에도 말슴한것과같이 잘하는 한명선수를 뽑아서 상을주자는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누구나 다함께 질겁게 놀고 끝고루 약소하나마 상을 하나씩 타도록하자는데서 홍과 백 두편을갈러서 각각五十명씩 먼저 노리를 합니다. 그다음 이기고 지는이가 자연 번노리에 생겨서 이기는이가 홍편에 몇명이고 백편에 몇명이고 생기면 홍백편합해서 한편진이가 五十명생깁니다. 이것으로써 제一회전이 끝나면 홍백편이 각각 一회전에 이긴이만이 남어잇어 제二회전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제一회전에 진이만이 따로 한판 버려서 계속해서 패판에서하는 시에 행합니다. 이러기를 제三회 제四회전 계속하는동안에 처음부터 이기고 또이겨서 올라간이가 홍백편합해서 열여섯명이나 혹은 여덟명쯤 남으면 이것은 당일형편으로 짝수를 채겟습니다 이것으로 홍백편전은 끝마칩니다.

여기까지 만히남어잇는편이 편전에 잇어서 이긴편으로되어 편상을 타게됩니다. 그러고 작구이겨서 올라간 열여섯명이고, 혹은 여덜명이 그때부터는 홍백편을 떠나서 남은이만이 정원선수권을 잡게될것입니다. 이러면 이맨나종에남은 한분이야말로 이날밤시조노리의 여왕으로 뽑혀서 두둑한상품을 타게될것입니다.

그러고 제二회전에저서 五十명 나종에 한분이남을때까지 놀아서 이 따로판을차리고 노는데도 맨 이예상한 상이잇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제一회전에 젓다구해서 그만 이밤노리에 상탈소망이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또 二회전, 제三회전에 지는것이 아니라 최후十六명혹은八명이남을때까지 편상품탈가망이 잇으므로 여기 이기도록 용진을하여야 할것입니다.

歌鬪와擲柶의밤 寄贈品

一、手巾 五打 朝鮮實業株式會社
一、三星萬年筆 一個 三星堂時計
一、三好白粉 一打 三好化粧品
一、朴家粉 百個 朴家粉製造本舖

○

靑山은 어찌하여 萬古에 푸르르며
流水는 어찌하여 晝夜에 긋지아니는고
우리도 그치지말고 萬古常靑 하리라 (李 滉)

○

靑石嶺 지나거다 草河口 어드메뇨
胡風은 참도찰사 궂은비는 무삼일고
누구서 내行色그려다가 님계신데 드릴꼬 (孝 宗)

一、日時 一月二十五(土)、六日(日) (第一日 午後五時半 (夕飯後))
一、場所 東亞日報社大講堂
一、會員 每日各百名 (婦人에限함) 一、會費 貳拾錢 (一日分)
第一回 婦人 歌鬪와擲柶의밤 (第一日 歌鬪 第二日 擲柶)
一、申請期日 一月二十三日午後四時까지本社庶務部로 (但期限前이라도定員에 達하면申請을마감함)
【注意】 歌鬪는漢城圖書本使用。競技規則其他詳細事項은追後發表。
主催 東亞日報社學藝部

紙上病院

신경쇠약

【문】 저는사십오세의남자입니다 삼십세때부터 벌서 생식기는쇠약하야 일주 일회가 어려웟습니다 그후도신여년전에 입질을 앓아서 일년간고생하고 나엇습니다 그후는아조쇠약하야 전연 쓸수가없엇습니다 그래서 음위조루에 관한매약 혹 주사로져우 생생활을 계속하야왓읍니다 이런매약을 장복함이 도로혀해되 지안는지요 또근본적 치료처방을가르주시기를바라나이다 (함주군일민생)

【답】 성생활의 불섭생또는 임질 앓은뒤에는 흔히 생식기의기능장애가 오는것인데 이에대하여서는 강장제또는 최음제가보통사용되나 그효과는 일시적인데 만습니다 무스야이던지 너머오랫동안 계속하는것은 그리 조치못하며 더구나 본약하면서 성생활의 섭생을 등한이하는것은 부적당하겟읍니다 그러므로 복약도 필요하거니와 간간히중지하다가 다시복용하도록 하여서 결코남용하지 말것이며또한 방사과다는 경계하여야 합니다 근본적 치료방법이라고는 별것 없겟으니 일반건강에 주의하시여 보험강장제흑은 강정제를적당하게 복용하되 간간히중지하도록하는것이 조흘듯합니다

생식기단소

【문】 소생은 十九세된 미혼남자이온데 十六、七세때의 수음(手淫)으로 인하야 생식기가 단소(生殖器短小)하고발기력이약(勃起力微弱)하며 조루(早漏)하온데 요사이 신문지상에 널리 광고내는 ホック 진공수치료기(眞空水治療器)를가지고 치료하면 효과가잇을른지요 또 달리 가정치료법이 잇는지요 자세히 하교하여주시요. (함흥 고룡생)

【답】 생식기의 단소한것을 기계로 치료하야 확효가 잇다고는 단정할수 없으니 그리 큰기대를갓지마시요. 가정적으로는 심신의단련 적당한직업에 대한 취미생활을 계속하는동안에 나히가 청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점차 나을수잇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상태에 대하야 너머 심려하거나 속히 고치려고 초조히 생각말고 될수잇는대로 용기를내고 유쾌한 기분으로 갓도록하시요. (全州府麻藥中毒者治療所安鐘一)

수신에대한주의

부부생활을한지 반년이나 일년이되어 서로의새로운것이 없이되면 처음에는 몸이 몸단장하는것을 세울리하야겨 우몸단장을 그대로밥상에 앉거나 등정이 더러워서 구여이 남지경인 동정을 그대로 입고잇거나 분때가저고리에 뭇은것을 입고서아모거리낌이 그대로 잇다는것은 남편이보게되면 더럽다는것을 모르고잇을리가 없는것입니다. 여자끼리보더라도 불유쾌한것을 아모리친한 부부사이라도 아츰 에일어나면 몸을단정히한것을 잊지말고 웃음깨끗이 입어야하니 남편은 ...

태도를 견딜수없이되어 이견딜수 없는기분을 전환시키라고 룸을타서 이리저리 놀러다니는것을사저다니게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감정을 언제나 잘소중하는방법을 알어야합니다.

오디라

一月二十二日(水)
▼六時 童謠 李定鎬
▼六時二十五分 經典解說 父母恩重經(二)
▼七時三十分 講演 佛專講師 金敬注 바이블의思想
▼八時 새타령外(一)雜歌(二)새타령(三)六字배기(四)興打鈴 中央日報社會部長 朴八陽
▼八時二十五分 時調(一)平時調(二)사설時調(三)지름 吳興淑 愼淑
▼八時四十分 喜歌劇 興打鈴 高永 大笒 朴基 洋琴 池龍九 全二景 金海雲案 放送劇研究會 演出 李如水 效果 効果

一月二十三日(木)
▼午前七時五十分(東)라디오體操
▼午後零時五分 하와이안키타— 音樂(一)산타루치아(二)라팔로마(三)異敎徒의사랑가(四)거타키호—ロ(五)하와이의노래(六)올드블랙죠(七)칼레지의밤(八)콜로라도의달 하와이안키타— 鄭永釆 스페니슈기타— 鄭明釆

一月二十四日(金)
▼午前七時五十分 (東)라디오體操
▼午後零時五分 ... (一)...(二)입산타령(三)...

第一放送 (二十二日)
▲午前七時一分(東)海外放送 ... ▲午後零時五分(大)音樂 ...

宇津救命丸
꿈과같은 아이의 生活!
健康한아이는 조흔꿈을
弱한아이는 조치안은꿈을 꿈니다
宇津救命丸은幼兒의 ...

育兒日記
安全한育兒는育兒日記에서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總代理店 東京 大阪 玉置合名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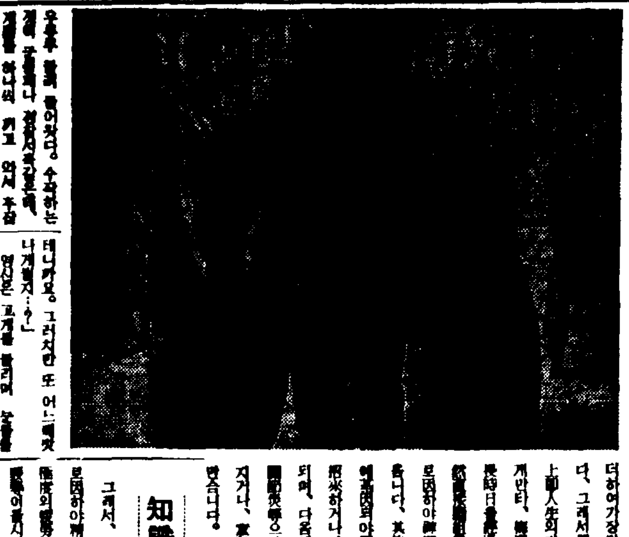
(映畫化上演、撮影)

常綠樹 (109)

沈熏 作 青田 畫

바여의봄길 (13)

[illegible]



[illegible]

活動時期의 人께만흔 梅毒과 脊髓癆

飮酒의 毒・精神上의 打擊・極度의 疲勞等은 特히 發病의 素因이 됨

[illegible]

治療의 最善

[illegible]

참된 健康을

[illegible]

知識階級에

[illegible]

第四期梅毒

[illegible]

冬季의 衛生

모―든病者의 警戒를要하는時季올시다。 더욱이梅毒과갓흔、潛伏性의病毒은、바람갓흔動勢를받을지라도再發又는惡化의염녀가잇읍니다。 特히冬期는酒其他刺戟物을입에갓가이하는때인만큼更히注意를要합니다。 梅毒의염녀가잇는사람은特히注意할 必要도잇거니와 梅毒의危險은、「새삼스러이말할 必要도없거니와 다음에記事를高覽하신후에梅毒에豫防과治療에注意하시옵바라나이다。

梅毒과 體毒 梅毒性吹出物에

ベルツ丸 (베루쓰丸)

SUZUKI NIPPON-SEIYAKUSHA

[illegible]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黑、藤田

一回効散

頭痛 齒痛 에 과 神經痛 에도

本舖 森田製藥所

確實取引 收入多大

產業獎勵會

寫眞

好職業

朝鮮劇場

これぞ幸運

天晴快傑

人罠

夜間飛行

優美館

風流千石やくざ

僧房悲曲

第一劇場

魔海의王者

白衣行進曲

丸橋忠彌

辭落下傘

復活

團成社

八點・鐘

劒雲隆摩歌

頭髮洗粉

花王シャンプー

화왕샴푸

깨끗이! 곱다라케!

화왕샴푸는東洋婦人의黑髮을가장잘理解한最高洗髮料입니다

때잘빠지고、헤어말리기쉽고 獨得한 美髮劑가 作用하야黑髮特有의色澤을나게합니다

一匣一個五錢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 長瀨商會・大阪

감기신열에 효험確実한

アンチピリン丸 (안치피린환)

美髮은 紳士道!

伊豆椿ポマード

新人層에向하야宏壯한躍進으로 축축팔여가나!

優秀한호르몬을配合한「伊豆椿」은 毛根에榮養을주고、비듬 가려움증、脫毛의防止 빗 향기롭고 부드러운 感覺을 基礎로하야完成된포마ー드이올시다

椿油 植物性 의二種이잇다

伊豆椿クッチ本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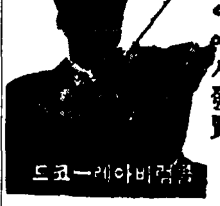
朝鮮이 낫은 世界的 提琴家

桂貞植博士吹込

新然콜럼비아에서發賣

수―보니―로

라이스의 冥想曲



도코―레아비컴

조선의자랑 우리의 옷감은 태극성광목

별표고무신

京城中央商工株式會社